번뇌 없는 데서 번뇌 생겨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㉟ 중생전도(衆生顚倒)

〈원문〉

"아난아, 어떤 것을 중생이 뒤바뀐 것이라 하는가? 아난아, 본성이 밝은 마음이 성이 밝고 원만하기 때문에 밝음을 원인으로 하여 성품이 펼쳐져 성에서 허망하게 보는 것이 생기느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마침내 있는 것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있고, 있게 되는 것이 원인이나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머물고 머무는 바의 상태가 마침내 근본이 없는데 이 머무름이 없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세계와 중생이 건립되었느니라. 본래의 원만하고 밝은 것을 미혹하여 허망이 생기었나니 허망의 성이 실체가 없어서 의지하는 바가 있지도 않느니라. 장차 참된 것에 복귀하려면 참되고자 함이 참된 진여의 성품이 아니니라. 진이 아님에 돌아가기를 구할진대 완연히 잘못된 상태가 되어 버리느니라. 잘못된 것이 생기고 잘못된 것에 머물러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법이 점점 발생하여, 생기게 하는 힘이 나와 훈습이 되어 업이 이루어지나니 같은 업으로 서로 감득하며, 감득하는 업이 있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서로 소멸되고 서로 생기게 하나니 이런 까닭으로 중생의 뒤바뀜이 있게 되었느니라."

〈강설〉

〈능엄경〉 7권의 신주(神呪)를 설한 다음에 나오는 중생이 뒤바뀌게 된 원인(顚倒因)을 밝히는 대목이 나온다. 이른바 중생전도(衆生顚倒)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중생전도란 깨닫지 못한 불각중생(不覺衆生), 다시 말해 무명중생(無明衆生)을 가리키는 말이다. '본성이 밝은 마음(性明心)' 은 진여 자체 곧 불성을 말하는 것으로 불변(不變)을 표현한 말이다. '성품이 밝고 원만하다(性明圓)' 는 진여가 인연을 따라 온갖 것에 펼쳐져 있다는 말로 수연(隨緣)의 입장에서 한 말로 본다. 이 두 말을 법성게의 '불수자성수연성(不守自性隨緣成)' 의 뜻으로 이해해 왔다. 4권의 경문에 나온 '성품 자체인 각이 밝아 망령되이 밝혀야 할 각이 되었다.(性覺必明 妄爲明覺)' 는 뜻을 다시 부연한 말로 본다. 이 말은 결국 여래장묘진여성인 그 성(性)에서 망견(妄見)이 생겼다는 말로 번뇌 없는 데서 번뇌가 생겼다는 뜻이다. 성품이 밝음 그대로인 마음에는 업상(業相)이나 전상(轉相), 현상(現相) 이른바 삼세(三細) 따위가 없었다는 말이다. 이 없는 상태가 필경무(畢竟無)이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緣)을 따르는 작용이 내재해 있다가 동요를 일으켜 본성을 이탈해 혹(惑)이 되어 업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혹은 능유(能有)가 되고 업은 소유(所有)가 되어 능소(能所) 관계가 벌어짐으로써 주관과 객관의 상대가 따라 벌어진다. 이 틈새에서 번뇌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업과 번뇌가 같이하여 머물게 하고 머무는 바가 되지만 머무는 근본이 없다 하였다. 이 머무름이 없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세계와 중생이 건립되었다고 경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뒤바뀐 전도(轉倒)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서 혹이 생기고 업이 생겼으므로 본래의 상태가 아닌 뒤바뀐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천하모(天下母)' 라는 말처럼 천지만물의 근원이 무(無)에서 나왔다는 말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한다. 본래의 성품 불성(佛性)은 결격이 없이 원만하고 밝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미혹하여 허망이 생겼다. 허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혹(惑)과 업(業)이다. 그래서 중생은 혹(惑) · 업(業) · 고(苦)가 악순환하여 생사에 유전(流轉)하게 된다. 수행이란 진여의 성품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래는 회복할 것이 없는데 미(迷)했기 때문에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복하려는 그 마음은 본래의 진여는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진여는 회복할 게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순금을 가지고 반지나 귀걸이를 만들었을 때 똑같은 금으로 만들어져 금의 성품은 변화가 일어날 수 없지만 모양과 용처는 달라진다. 반지나 귀걸이가 본래의 순금 상태는 아닌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무념 · 무심 · 간극과 밝은 성품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㉟ 선정바라밀과 지혜바라밀

보살도 3지에서는 무념 · 무심 · 간극, 밝은성품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밝은성품으로 생멸심을 덮은 다음 진여심과 생멸심을 일치시키는 것이 이때에 행해지는 선정바라밀이다. 반야해탈도의 과정에서 분리시켰던 자기 생멸심이 제도의 대상이다. 해탈지견식과 구경각이 활용된다. 보살도 4지에서는 무념 · 무심 · 간극, 밝은성품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진여심의 무념처와 생멸심의 식업을 일치시킨 다음에 간극으로 제도하는 것이 이때에 행해지는 선정바라밀이다. 반야해탈도의 과정에서 분리시켰던 자기 생멸심이 제도의 대상이다. 해탈지견식과 구경각이 활용된다.

보살도 5지에서는 무념 · 무심 · 간극, 밝은성품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진여식의 무념처로 생멸식의 식업을 일치시키고 진여식의 무심처로 생멸식의 심업을 일치시킨 다음에 간극으로 제도하는 것이 이때에 행해지는 선정 바라밀이다. 분리시켰던 자기 생멸심이 제도의 대상이다. 해탈지견식이 암마라식으로 전환되고 구경각이 활용된다.

보살도 6지에서는 무념 · 무심 · 간극, 밝은성품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간극에 머물러서 무념 · 무심을 돈독하게 껴안고 있는 것이 이때에 행해지는 선정바라밀이다. 제도된 생멸심이 중간반야해탈을 성취한 상태이다. 암마라식과 구경각이 활용된다.

보살도 7지에서는 무념 · 무심 · 간극, 밝은성품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네 가지 정의 주체를 전체적으로 활용하면서 생멸문의 반연중생들을 제도한다. 구경각과 암마라식이 활용된다.

보살도 8지에서는 무념 · 무심 · 간극, 밝은성품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부동지를 성취해서 물들지 않는 진여심을 갖추는 것으로 선정바라밀을 행한다. 구경각과 암마라식이 활용된다.

보살도 9지에서는 무념 · 무심 · 간극, 밝은성품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암마라식을 제도해서 육근원통을 이루는 것으로 선정바라밀을 행한다. 구경각과 원통식이 활용된다.

보살도 10지에서는 무념 · 무심 · 간극, 밝은성품, 원통식이 정의 주체로 활용된다. 밝은성품으로 생멸문 전체를 덮어서 향하문으로 향했던 대자비문을 완성시킨다. 간극에 머물러서 끊임없이 밝은성품을 생성해내는 것이 이때에 행해지는 선정 바라밀이다. 구경각과 원통식이 활용된다. 등각도에 있어서 선정바라밀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공여래장과 불공여래장 사이에서 작용하는 그리움을 인식하는 것이다. 불이문을 성취하기 위해 행해지는 선정바라밀이다. 두 번째 단계는 불이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 개의 간극을 인식하는 것이다. 불이문의 상태에서는 공여래장의 대적정처에서 하나의 간극이 세워지고 공여래장과 불공여래장 사이에서 또 하나의 간극이 세워진다. 일심법계를 완성시키고 천백억화신을 생성해내기 위해 행해지는 선정바라밀이다.

지혜바라밀에는 생멸지혜와 진여지혜가 있다. 생멸지혜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혜(慧), 해탈(解脫), 해탈지견(解脫知見)이 그것이다. 진여지혜는 일곱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해탈지견, 암마라식, 원통식, 일체종지. 자연지, 무사지, 불지, 여래지가 그것이다. 생멸수행에 있어서 지혜바라밀을 행하는 것은 혜, 해탈, 해탈지견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진여수행에 있어서 지혜바라밀을 행하는 것은 해탈지견, 암마라식, 원통식, 일체종지. 자연지, 무사지, 불지, 여래지를 갖추기 위해서다. 혜(慧)는 본성에 입각해서 의식 · 감정 · 의지가 쓰이는 것이다. 견성오도 이후에 갖추어진다. 해탈(解脫)은 의식 · 감정 · 의지에서 벗어난 것을 말한다. 반야해탈도 이후에 갖추어진다. 해탈지견(解脫知見)은 본성, 각성, 밝은성품이 쓰이는 것이다. 멸진정 이후에 갖추어져서 보살도 5지까지 활용된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㉟ 일체 제법의 찰나

'찰나'도 '전부'도 모두 이름일 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있다 보니, 언제나 확고한 어떤 앎의 상태나 어떤 앎의 느낌으로 사물을 확인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순간적인 찰나의 앎의 상태는 없다. 지금 바로 알고 있는 그 마음뿐이다. 그 보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 외에 생각으로 키운 마음도 아니고, 생각으로 줄인 마음도 아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마음만 없다면 보이는 그대로의 마음이 전부다. 다만 그대로의 마음을 취하여 해석하면 안 된다. 그대로의 마음은 속함이 없기 때문에 '있다, 없다' 의 개념으로 판단하면 그대로의 마음이 되지 못한다. 판단 없는 그대로의 마음이니 나만 알고 말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지만 상대와 다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대승경전 〈금강경(金剛經)〉 제18 '일체동관분(一體同觀分)' 에 "저 많은 국토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여래는 다 아느니라. 왜냐하면 여래가 말하는 모든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까닭은 수보리야,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원음인 〈맛찌마니까야〉 제131 '한 밤의 슬기로운 님' 의 경에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미래도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상태를 그때그때 잘 관찰하라. 정복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것을 알고 수행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쪼갤 수 없는 마음이 우리의 본마음이다. 이쪽이나 저쪽의 조건으로 마음을 쪼개어 가져봐야 기쁨도 잠시이고 슬픔도 잠시뿐이다. 그런 마음은 돌고 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다른 마음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보이는 것은 실재하는 현상계 같지만, 그것은 가지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그것이 실재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일체법이 모두 찰나공이라는 이론에만 집착한다면, 일체법이 찰나에 괴멸된다는 사실이나 무루의 법이 결코 찰나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알 수 없네. 만약 한결같이 한 생각 한 생각이 무상(無常)이라면 찰나의 괴멸로 일체법을 개괄하는 것이니, 이렇게 되면 단견의 공에 떨어지고 말며 무위법 역시 괴멸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네."

찰나같이 실체 없는 꿈을 좇는 허깨비처럼 자신을 괴롭게 하고 다시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아다녀선 안 된다. 스스로 괴롭게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물질적인 것으로 괴로움을 벗어나려 하지 않고, 느낌적인 것으로 괴로움을 벗어나려 하지 않고, 지각, 의도, 의식적인 것으로도 괴로움을 벗어나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 다섯 가지를 존재의 다발[오취온(五取蘊)]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여기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줄 알지 못하고 이것으로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나 이 오취온은 찰나에 나타나고 찰나에 사라지는 아지랑이 같은 허상인데, 우리는 그것이 허상인 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잡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그것은 잡아 둘 수 있는 실재가 아니다. 인연 따라 움직이는 뜬구름이다.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오아시스다. 멀리서 보면 있는 듯하지만 가까이 가면 다시 저 멀리 있는 듯이 보이는 무지개 같은 것이다. 뜬구름이나 오아시스를 찾아다니는 정신 나간 사람이 되지 말자. 밖으로 나가 찾아 헤매는 정신을 진정시키고 오취온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나 스스로가 될 수 없는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바른 사유인 오취온으로 나를 만들려는 마음을 버리게 되고, 오취온으로 삶을 영위한다는 마음을 버린 바른 언어와 바른 행위와 바른 생활을 하게 되고, 오취온의 유혹에서 바른 용기를 내는 바른 정진을 하게 되고, 오취온으로 인하여 많은 착오를 일으키더라도 오직 바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진 바른 의식으로 집중하게 되고, 오취온의 뿌리 깊은 존재성을 끊어버리는 선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바른 앎이 생기기 전까지의 과정 아닌 과정이고, 그 스스로가 드러나게 되면 '찰나' 라는 것도 '전부' 라는 것도 그저 이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일일시호일

"매일매일 고향의
아내와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미얀마 이주민 아우룽 툰씨, 소뇌 내출혈로 생명 위협
가까스로 살아났지만…병원 빚 2000만원에 고향 못가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